

수비가 비수

KIA 공격력 상승 불구... 느슨한 수비가 발목 잡아



유격수 앞 땅볼이 나왔고, 스타트를 끊은 2루 주자 최형우가 협살에 걸렸다. 최형우를 압박하면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지만 타자주자 이지영을 견제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이지영은 최형우가 2루와 3루 베이스를 오가는 동안 2루에 안착을 하면서 2사 2루의 기회를 이어갔다. 이지영은 결국 감정적인 좌전안타 홈을 밟았다. 이후 백상원의 2루 땅볼로 이닝이 끝난 만큼 2루를 내주지 않았다면 실점 없이 끝낼 수 있던 이닝이다.

홈승구도 아쉬웠다. 이날 우익수가 아닌 좌익수로 선 '고졸 루키' 이지영은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두 차례 보살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2회 이지영과의 홈 승부는 비드로 판정까지 요청했지만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1-2로 뒤지던 4회 2사 2루에서도 삼성 백상원의 좌전안타가 나왔고 다신 한번 홈승부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자 박한이의 손이 먼저 홈을 찍었다.

1-4까지 벌어진 5회에는 강한울의 야수 선택이 나왔다. 양현종이 선두타자 박해민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았다. 이승엽의 땅볼로 1사 3루. 그리고 최형우의 유격수 앞 땅볼이 나왔고, 박해민이 홈으로 향했다. 홈승부를 생각하면 적극적인 대시와 송구가 이뤄져야 했지만 한 박자 늦었던 강한울의 움직임과 송구로 세이프가 선언됐다. 초반 실점을 줄일 수 있었던 KIA는 4-5까지 쫓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12일 KIA는 수비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던 강한울을 2군으로 내리고 박찬호를 불러들여 유격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지난 한화전에서 대수비로 나와 아쉬운 수비를 했던 홍재호도 좌병연과 자리를 바꿨다. 엔트리 카드로 분위기를 바꾼 KIA가 수비의 세밀함을 더해 승률 더하기에 나선다.

수비의 '세밀함'이 승률을 높인다. 될 듯 말 듯 풀리지 않고 있는 KIA의 2016시즌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격력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최하위를 장식했던 팀 공격 지표가 경중 뛰어올랐다. '부상' 김주찬이 전 경기 출장 속에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부진' 나지완도 지난해 초반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호령·서동욱이라는 계산 밖의 공격력으로 더해졌다.

마운드도 부상으로 인한 선발 고민은 있지만 여러 악재에도 잘 버티고 있다. 그러나 수비가 승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실책이 급증했다. KIA는 지난해 84개의 실책으로 NC(83개)에 이어 최소실책 2위의 견고한 수비를 자랑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11일 경기까지 56경기에서 46개의 실책이 기록됐다. 경기당 평균 0.8개다. 보이는 실책만이 문제가 아니다. 세밀하지 못한 수비로 실점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

KIA는 양현종이 출격한 지난 11일 삼성에 4-5 패를 당했다. 초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현종이 9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져주기는 했지만 9이닝 8피안타 2볼넷 6탈삼진 5실점의 완투패가 기록됐다. 양현종의 올 시즌 두 번째 완투패, 9이닝 완투패는 처음이다.

쉽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5회까지 5실점을 했던 양현종. 주자를 내보낸 양현종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수비수들의 세밀하지 못했던 플레이도 실점에 기여를 했다.

김호령의 홈런으로 1-0으로 앞선 2회초, 양현종이 첫 타자 최형우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았다. 이후 1사2루에서 이지영의

홈승구도 아쉬웠다. 이날 우익수가 아닌 좌익수로 선 '고졸 루키' 이지영은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두 차례 보살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2회 이지영과의 홈 승부는 비드로 판정까지 요청했지만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1-2로 뒤지던 4회 2사 2루에서도 삼성 백상원의 좌전안타가 나왔고 다신 한번 홈승부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자 박한이의 손이 먼저 홈을 찍었다.

1-4까지 벌어진 5회에는 강한울의 야수 선택이 나왔다. 양현종이 선두타자 박해민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았다. 이승엽의 땅볼로 1사 3루. 그리고 최형우의 유격수 앞 땅볼이 나왔고, 박해민이 홈으로 향했다. 홈승부를 생각하면 적극적인 대시와 송구가 이뤄져야 했지만 한 박자 늦었던 강한울의 움직임과 송구로 세이프가 선언됐다. 초반 실점을 줄일 수 있었던 KIA는 4-5까지 쫓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12일 KIA는 수비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던 강한울을 2군으로 내리고 박찬호를 불러들여 유격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지난 한화전에서 대수비로 나와 아쉬운 수비를 했던 홍재호도 좌병연과 자리를 바꿨다. 엔트리 카드로 분위기를 바꾼 KIA가 수비의 세밀함을 더해 승률 더하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꿈나무에 장학금 6천만원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야구 꿈나무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개최하고 야구 유망주 20명에게 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된 자금 중 일부다.

이날 경기에 앞서 KIA는 학생 대표인 최민식(진흥중) 등 20명의 야구 꿈나무

들에게 장학금과 러브투게더 유니폼을 전달했다. 시구는 장학금을 받은 충주성심학교 김선도 군이, 시타는 러브투게더 우수 참여 직원인 박성수 부장(목포지점 영업부)이 했다.

KIA 선수단은 이날 특별 제작한 '러브투게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펼쳤으며,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꿈나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혜진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우승

국가대표 최혜진(17·학산여고 2년·사진)이 '제 14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혜진은 7일부터 시작한 화순CC에서 열린 여자부 대회에서 함께 17언더파 267타를 쳐 성은정(17·금호중양여고 2년)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트로피를 지켰다.

최혜진은 이날 12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샷감각을 선보이며 대회 사상 역대 최저타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성은정은 박민지(보영여고 3년)와 10언더파 274타로 동타를 기록했지만 대회 규정인 '가운트 백'(최종일 18홀→후반 9개홀→후반 6개홀 순으로 성적)을 따져 순위를 가린다) 방식에 따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는 한국 체대 선수들의 독무대였다. 김태호(21·한국체대 3년)가 13언더파 271타를 쳐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김한별(20·2년)이 10언더파 274타로 2위, 윤성호(20·2년)가 3위에 올랐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6월 10일 7연패... '아기호랑이'가 끝났다

故 김상진을 기억하며

1997년 KS 완투승 활약 1999년 22살에 위암 타계

타이거즈 6월 10일 연패 1997년생 정동현이 끊어 삼성전 5.2이닝 무실점 KIA 9년만에 고졸 선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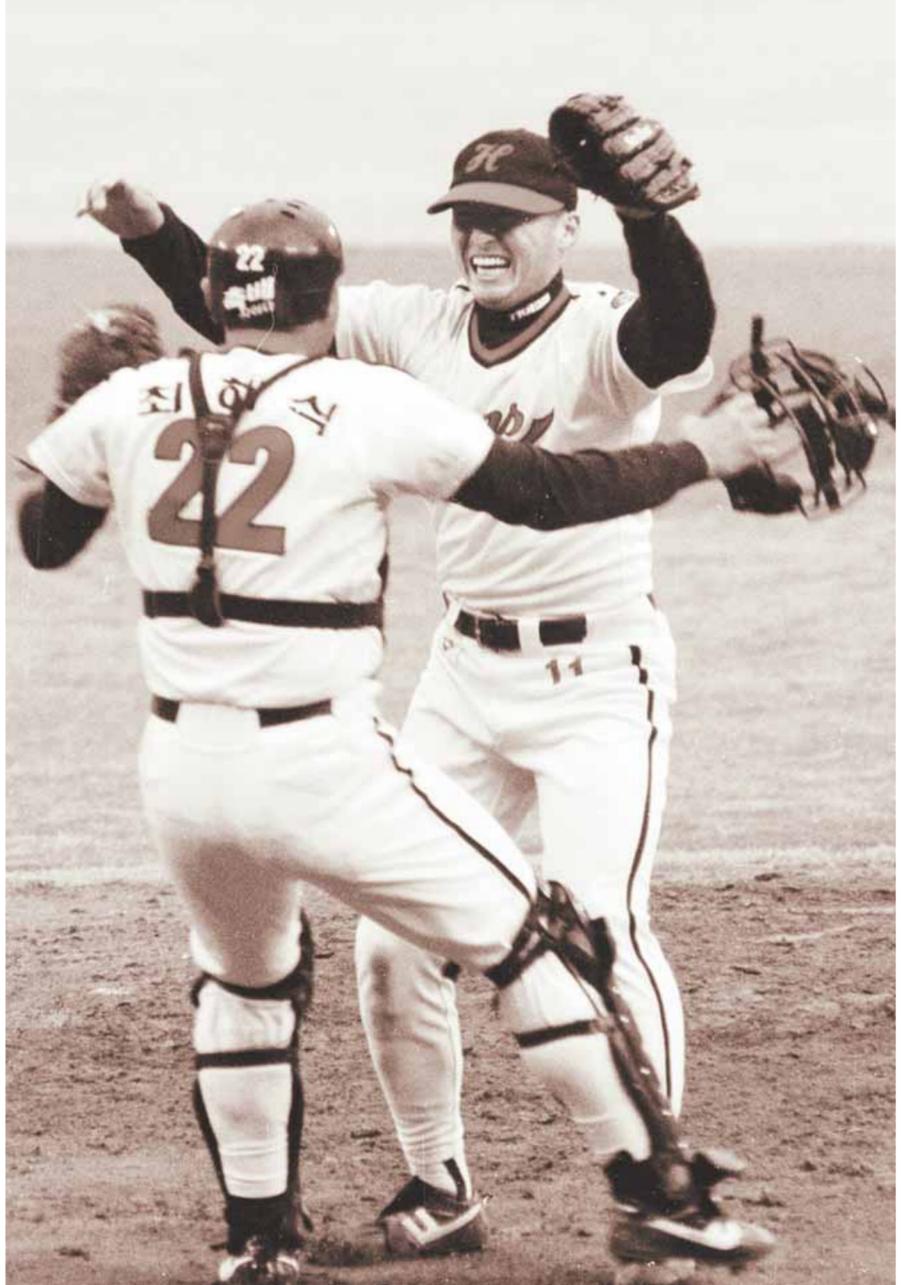
타이거즈의 올드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1997년의 기억이 있다. 1996년 진흥고를 졸업하고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아기 호랑이'가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섰던 날의 기억이다. 2차전 선발로 나왔다가 일찍 선배들에게 마운드를 내줘야 했던 '아기 호랑이'가 5차전 다시 선발로 나섰다.

입단 첫 해 9승을 수확한 씩씩한 신인이라고 해도 쉽지는 않은 자리. 또 1승만 더하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경기였던 만큼 마운드에 이복이 쏠렸다.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선수는 초반 위기를 넘은 뒤 침착하게 이닝을 지워갔다. 그리고 9회까지 모든 아웃카운트를 책임졌다. 6-1로 경기가 끝나면서 V9의 피날레는 20살의 '아기 호랑이'가 장식했고, 한국시리즈 최연소 완투승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의 이름은 김상진이다. 이제는 많은 팬들과 선수들에게도 생소한 이름. 아픔의 이름이기도 하다.

타이거즈 마운드 왕국의 미래로 사랑 받았던 '아기호랑이'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불꽃같은 삶을 마감해야 했다. 1998년 가을 위암으로 쓰러졌던 그는 다시 마운드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999년 6월10일 눈을 감았다. 일찍 멀리 떠나버린 그는 '영원한 아기 호랑이'가 됐다.

6월10일이 돌아오면 타이거즈 유니폼에는 그를 기리는 검은 리본이 휘날렸다. 그러나 훌쩍 지나버린 시간, 이제는 검은 리본 대신 그를 잊지못한 이들의 기억만 남아있다. 그리고 연패도 남았다. 2008년 6월10일, 2-10 패배 이후 그의 기일이 되면 타이거즈는 졌다. 월요일이었던 2013년을 빼고는 내리 7연패였다. 9회 4점을 추격하고도 1점이 부족해서, 장단 20안타를 치고도 15-16으로 졌다. 윤석민이 선발로 한 이닝 5실점을 하기도 했고, 마무리로 역전패를 허용하기도 하는 등 내용도 좋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6월10일 길고 씁쓸했던 연패가 끝났다. 김상진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1997년. 그 해 태어난 고졸 루키 정동현이 큰 일을 했다. 두 차례 불펜으로 나왔다 그는 첫 선발 등판에서 삼삼을 상대로 5.2이닝 5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하며 4-0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2-0의 리드 상황에서는 또 다른 고졸 루키 정동현이 등판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책임졌다. 두 '아기 호랑이'의 씩씩



1997년 LG 트윈스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최연소 완투승을 거두며 해태 타이거즈의 'V9'를 이끈 故 김상진(오른쪽) 선수.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 투구에 난적 윤성환(삼성)은 완투패의 쓴 잔을 들어야 했다. 이 경기로 정동현은 2007년 양현종에 이어 KIA '고졸 루키 선발승'의 주인공이 됐다. 첫 선발 등판 승리는 2002년 김진우 이후 처음이다.

씩씩한 두 신인이 만들어낸 승리에 많은 이들이 일찍 떠나버린 '아기 호랑이'를 그리며 가슴 울려온 하루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진의 기일이었던 지난 10일 KIA TIGERS FAN TEAM 회원들이 그를 기리는 현수막을 들고 삼성과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박인비, LPGA 명예의 전당 가입

통산 25번째 회원...박세리 최연소 기록도 갈아치워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마침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는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사할리 골프클럽(파71·6천624야드)에서 개막한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2타를 기록,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10번째 출전 대회 1라운드를 마친 박인비는 이로써 명예의 전당 가입에 필요한 27포인트와 활동기간 10년을 모두 충족해 2007년 박세리에 이어 한국

은 물론, 아시아 여자골퍼로는 두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18번 홀을 끝내자, 기다리고 있던 박세리와 유소연(26·하나금융) 등 선수들이 꽃다발을 들고 포옹하며 박인비의 명예의 전당 입회를 축하했다. 박인비의 이날 명예의 전당 입성은 27세 10개월 28일 만으로 역대 최연소로 기록됐다. 박세리는 가입 당시 29세 8개월여만이었다.

1951년 패티 버그, 베티 제임슨, 루이스 스티스, 베이브 자하리야스 등 LPGA 투어 창립 멤버 4명이 한꺼번에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이후로는 통산 25번째 회원이 된다.

LPGA 전체로도 박세리 이후 9년 만



박인비(오른쪽)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사할리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고, 2000년 이후로는 안니카 소렌스탐과 카리 웹, 박세리에 이어 네 번째다. 레나 오초아(멕시코)와 한 때 여자골프를 지배했던 정아니(대만)도 명예의 전당에 세계여자골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로 가입하지 못했다. <연합뉴스>